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심층분석 -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통한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

전 은 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 원 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최근 패러다임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립생활로 전환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이해력에 관해 사례연구방법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2개 범주로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달픔',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금융이해력의 직접적 저해요인으로 '제한된 소통과 문제해결의 어려움', '정보접근의 벽과 비용의 부담감', '대처하기 힘든 금융거래와 소비자 활동'의 3개 범주를 추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10개의 하위범주와 41개의 의미단위가 나타났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은 금융관련뿐 아니라 일상생활상의 업무수행과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지만, 금융이해력 증대와 자기결정권 활용에는 여전히 시간과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금융이해력

* 제1저자(sign3927@hanmail.net)

** 교신저자(wicho@kyonggi.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IMF 사태’와 ‘신용카드 대란’으로 불리는 일련의 경제위기로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경험한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개인 금융 상황의 악화는 국가의 대응 능력뿐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올바른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요구한다. 금융이해력이란 예금, 대출, 주택계약, 신용카드, 투자, 보험, 신용관리, 대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금전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금융감독원, 2005; 전은수, 조원일, 2011: 91).

이러한 금융이해력은 물론 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금융지식 및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올바른 재무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윤지애, 2005: 6; 전은수, 2009: 6). 이 경우 금융이해력은 소비자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면에서 장애패러다임 중에서도 자립생활모델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대두되는 자립생활모델에서는 이전까지 장애정책의 주류 모델이던 재활모델과 달리 장애인의 문제가 물리적 환경과 전반적인 사회통제 기제를 포함하는 환경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또한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경제적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원조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에 있게 된다(임종호 외, 2011: 94-96).

장애인 자립의 주요 영역 중 하나가 경제적 자립과 그를 위한 자기결정권에 초점이 주어진다면 종전과 같은 사후적 소득 보전 방식과 더불어 소득의 활용 내지 관리 역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의 증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은 아직까지 측정된 바가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성인기와 학령기를 불문하고 전혀 그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로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전은수(2009)의 탐색적 연구에 이어 전은수, 조원일(2011)의 심층적 연구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먼저 전은수(2009)는 전국 16개 농아인협회에 소속된 농인들의 재정관리·투자·금융지식에 대해 연령, 학력, 성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현재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해 실시되는 일회적 프로그램이나 강연이 아닌 대상별 금융교육 및 정보의 제공, 상시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금융기관에 수화통역사의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전은수, 조원일(2011)에서는 금융이해력의 증대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에 농문화와 의사소통수단을 반영한 다각적인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제시하였다.

2. 연구 문제

이처럼 장애인의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연구는 장애유형중에서도 농인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만이 일부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각장애인¹⁾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금융이해력은 어떠한가?

II.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에 있어 금융이해력의 의의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행사하려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에서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없이 포괄적인 시민의 권리로 다양한 영역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장애인은 통제,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삶의 과정에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계획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박형진, 2008: 70).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향유는 자립생활모델의 실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는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 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자주적 통제권을 강조하는 것이다(김진우, 2010: 39). 자립생활센터는 위와 같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역할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활동기관으로, 지역사회의 전 장 애를 포괄한다(우주형, 2006).

자립생활의 이념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는 지체장애인 위주의 한정된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익섭 외, 2007: 71). 시각 장애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포섭 범위에 속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금융이해력에 관한 프로그램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에 관해선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발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으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거의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인인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18~44세 이하에서는 72.3%, 45~64세 이하에서는 80.2%, 65세 이상에서는 92.9%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해 모른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이용한 경험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변용찬 외, 2009). 2012년 2월 현재 전국에 72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등록 기관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으로(한국자립생활총연합회 홈페이지), 금융이해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몇 자립생활센터에서 금전관리와 관련한 단편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시각장애라는 고유한 감각의 장애로 인한 특성인 의사소통 방법의 곤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문자언어인 점자의 경우 점자해독률이 2.4%에 불과하였다. 이는 점자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 달리 저시력인(people with low vision)의 경우 목자(일반글자)로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맹인(blind)의 경우에는 점자습득이 필요하지만 중도실명으로 점자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변용찬 외, 2009: 114).

또한 시각장애인의 음성언어 의사소통에는 정확한 시상 없이 언어적 유희를 한다는 ‘언어주의(verbalism)’도 존재한다. 중도실명의 경우 사물의 형상과 색 등에 대한 잔상을 갖고 대화하지만 선천적 맹인의 경우 암기식의 개념을 직접하게 되어 온전한 의사소통을 저해한다. 더불어 타인과의 눈 맞춤, 얼굴 표정, 손동작 몸짓과 몸자세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정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단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 내용이 7%, 어조, 음성의 크기, 속도, 음색 등 음성적인 특성이 58%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김영일, 2010: 217-218).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은 농인에게서 나타나는 독자적 문화형성과 의사소통방식의 차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시각장애의 경우, 농인의 고유 ‘농문화’와 ‘농사회’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이 아닌 ‘통합적 사회문화 형성’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정안인과 관계유지를 지향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청각만으로 얻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점자 읽기·쓰기와 관련한 장비와 자료접근 기술뿐 아니라 협력, 상호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같은 개념들을 발달시키는 동료들과의 질적인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정광윤 외 2001: 180-182). 이를 위해 학령기 시각장애인의 교과과정에는 부가적인 기술·기능으로 학문적인 기술, 환경적응 및 기동성, 사회적인 상호 작용, 휴양과 여가 기술, 경력 교육, 시각적인 효율성 기술 등이 포함된다(Hatlen, 1996). 이로부터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 증대에는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사소통과 정보활용이 가능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여부가 중요함이 시사된다.

셋째, 장애인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금융이해력 측정을 금융감독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2003년부터 매년 서울과 수도권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자금관리, 지출·신용, 저축·투자 등 4개 하위영역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해 왔다(천규승, 2011: 74). 그러나 장애인 일반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유형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측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금융이해력 측정에 대한 관심의 결여와 장애인의 측정 도구를 별도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전은수, 조원일, 2011), 이러한 국가적 관심의 결여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 증진의 험로를 예상케 한다.

III.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풍부한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 나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는 것이다(조용환, 2009: 20). 연구되는 것은 프로그램, 사건, 활동, 개인으로 연구자의 쟁점, 목적, 방법을 설명하여 독자들이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저자의 배경, 사례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례에 대한 기술과 주제, 주장, 연구자의 해석, 현실주의적인 대본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Creswell, 1998: 225-6). 이렇듯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은 맥락과 쟁점을 가진 체계이며, 다양한 자료수집,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등으로 볼 때, 이 연구의 주제에는 질적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 절차

1) 예비 인터뷰

본 조사를 위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의 심층적 접근을 위해 문헌검토와 더불어

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1호)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서울맹학교 교사, 시각장애연구원, 금융기관장 역임한 금융전문가 각 1명씩 모두 3명을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비인터뷰 기간은 2011년 5월 7일부터 2011년 7월 28일까지 개별 면접방식 및 전화를 통하여 1인 2회에서 3회까지 실시하였다.

2) 시각장애인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경기에 생활하는 성인 남·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특성상 개인의 자립생활과 직장동료관계, 금전관리 실태 등 사생활 노출에 직결되는 사항을 심층인터뷰하게 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 중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었다. 단,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9명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학력이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첫째, 눈덩이 표집 방식의 영향으로 최초 연구 참여자가 고학력자가 선정된 후 다음 연구 참여자도 고학력자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취업 시기까지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취업 후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표 1> 시각장애인 연구 참여자 정보

연번	연구 참여자	연령	결혼	성별	거주지	학력	장애등급	신분
1	A	57	유	남	경기	박사수료	1급	직장인
2	B	30	유	남	경기	대졸	1급	직장인
3	C	41	무	남	경기	초대졸	1급	직장인
4	D	42	무	남	경기	대졸	1급	직장인
5	E	49	유	남	서울	박사수료	1급	직장인
6	F	33	유	여	서울	석사	1급	진학준비
7	G	33	유	여	서울	석사	1급	교사
8	H	26	무	여	서울	석사	1급	취업준비
9	I	33	무	남	서울	대졸	1급	취업준비

본 조사는 연구 참여자 9명 모두를 대상으로 각 1회씩 최소 43분에서 최대 72분까지 1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차 이후의 인터뷰는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에서 11월 18일까지 전화로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나이, 학력, 교육경험, 직업경력 정도 등 기본적인 사항과 자립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자립의 어려움,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접근 신뢰기관, 다른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인식, 당면 과제 등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은수, 조원일(2011)의 ‘농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의 심층 분석’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 중 예비 인터뷰와 시각장애인 관련한 문헌연구를 통해 중요한 세부질문 사항을 가·감하여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영역에서는 출퇴근 형태, 이직경험, 자기결정권, 교육경험, 학교 전공 연계성을 추가하였다. 지출영역에서는 수화통역비, 보청기 관련 문항을 삭제하고 장애로 인한 주된 지출내용, 지출 관리주체와 결정권, 지출시 우선 고려사항, 금전거래 경험을 추가하였다. 정보영역에서는 청음회관,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자립센터로 수정하고, 문화생활에 대한 의견, 정보활용, 훈련경험, 활동보조서비스, 인식접근의 한계를 추가하였다(<표 2> 참조).

<표 2>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

자립 생활과 금융 이해력	수입	직업	최근 하루일과, 근무환경, 출퇴근 형태, 갈등 또는 만족요인
		경험	학교졸업 후 소득활동과 경험, 이직경험
		인식	자기결정권(자립)에 대한 인식, 욕구, 방해요인, 목표 및 계획
		교육	자립을 위한 고용훈련 경험, 교육경험, 학교 전공 연계성
	지출	주거	주거현황(부모 동거 유·무, 가족구성형태)
		경비	장애로 인한 주된 지출 내용 등
		인식	지출에 대한 관리주체와 결정권, 인식, 우선 고려사항
		관리	지출내역, 저축여부, 관리형태, 금전거래(개인, 금융기관) 경험
	정보	교육	자기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 문화생활에 대한 의견
		재정 관리	재정관리 교육인식, 경험, 정보 습득과정에 대한 의견
		서비스	정보활용, 훈련경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 안전망	복지관, 시각장애인협회, 자립센터 등 지지기관에 대한 이용과 인식
		인식	접근의 한계 및 욕구에 따른 개선의견

개별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 9명을 각기 만나 먼저 개방형 질문으로 시각장애인의 생활, 인식, 직장, 교육, 정보접근, 재정관리 등에 대하여 최대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개별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자연스러운 인터뷰와 연구 참여자와 친밀한 관계(rapport) 형성을 위해 미리 만나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에 있어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도출된 연구 결과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질적연구와 관련된 학회의 워크숍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연구의 민감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구상 및 집필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이르기까지 연구자가 대학원의 장애인복지 및 장애학 분야의 전문가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해 온 지도교수와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반복되었다.

IV. 연구 결과

연구 결과, 9명의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 기술 중 의미 있는 진술로 총 211개가 도출되었다. 이 때 의미가 중복되는 진술을 제외한 범주화된 의미 있는 진술들에 대해 재 진술 과정을 반복하여 구성된 의미 41개가 추출되었다. 이는 다시 10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추상화되었다. 5개 범주는 먼저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2개 범주로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달픔’,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금융이해력의 직접적 저해요인으로 ‘제한된 소통과 문제해결의 어려움’, ‘정보접근의 벽과 비용의 부담감’, ‘대처하기 힘든 금융거래와 소비자 활동’의 3개 범주를 추출하였다.

<표 3> 도출된 영역·범주 및 의미단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시각 장애인 금융 이해력의 맥락적 요인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달픔 A	접근하기 어려운 취업 ①	이동 경로가 부담되는 교육기관
			신속한 점역과 음성전환의 한계
			비장애인 인식에 갇힌 능력
			텔레마케팅이나 안마업체만 권유
		동료에 유지가 부담되는 직장생활 ②	비굴해져야하는 식사시간
			업무과중으로 느끼는 동료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영역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직장내 존재감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활동보조서비스 B	다양한 활동보조서비스 활용 유형 ③	학습지원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이동이 우선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센스 있는 활동보조인 필요
			갈등 없지만 욕구에 못미치는 활동보조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한사유 ④	급한 일은 활동보조서비스 활용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부족과 자부담
			이동을 더 힘들어하는 활동보조인
			받아들이기 힘든 활동보조서비스
			지정된 일만 하려는 활동보조인
시각 장애인 금융 이해력의 저해 요인	제한된 소통과 문제해결의 어려움 C	온전하지 않은 의사소통 ⑤	표정과 시선처리의 어려움
			이론적으로만 외운 수많은 색깔과 모양
			말없인 소용없는 온화한 미소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하는 점자의 중요성
		신분에 따른 문제해결 과정 ⑥	시키면 되는 관리자 입장
			주변 정안인에게 부탁
			개인 문제에 관여 않는 기관
			스스로 전화 민원처리
	정보접근의 벽과 비용의 부담감 D	정보접근을 막는 장애물 ⑦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정보
			읽혀지지 않는 인터넷 그림 창
			접근하기 힘든 공인인증 확인절차
			비용부담이 큰 도서 정보
	대처하기 힘든 금융거래와 소비자활동 E	통제하기 힘든 지출 ⑧	길거리에 뿌려지는 돈
			부탁하는 입장에서 사례 부담감
			받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되는 보조기기
			개인정보를 노출해야하는 부담감
		부담되는 금융거래 ⑨	변화하는 금융거래 매체 사용법의 어려움
			목자로 서명해야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전화로는 한계 있는 금융거래
			동행자를 요구하는 금융기관
		제약 받는 소비자 활동 ⑩	정안인에게 맡겨진 자기결정권
			가격이 상품 구매시 가장 큰 기준
			만져보면 기분나빠하는 사람들
			제한된 문화생활 선택권

상기와 같이 도출된 하위범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와 같이 대표적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달픔

1) 접근하기 어려운 취업

시각장애인(맹)학교의 대표적인 직업훈련과정은 현재까지도 ‘이료과정’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법적인 보호 해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고용영역으로서 그 기반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학력이나 전공, 교육과정과 무관한 텔레마케팅과 같은 특정 직업군으로의 취업연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학령기를 지나 신체활용 직업군에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직업군으로의 진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이론과 실습지원이 가능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점역과 음성지원 그리고 접근성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강사의 배치도 요구된다. 이는 교육지도 차원에서 교과용 도서의 제본형태, 점자지도, 전자도서의 증대까지도 세부적으로 맞물려 있다(김정현 외, 2007: 112-113). 이러한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선택은 매우 제한되어 자립생활센터 등의 역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시각장애특성을 고려해주는 복지관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마저 컴퓨터 교육과 같은 이용자의 기본적인 학습 욕구에 대해서조차 여전히 지도자가 점자정보단말기나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운택, 한경근, 2007: 232).

워낙 교통 건이 불편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서(고용훈련기관) 훈련되어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개인이 각 복지관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교육을 들어서 그냥 자기 계발 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 F)

공부할 때 어려움은 교재지원 같은 게 어려운데 전공교재 텍스트로 만들거나 그런 지원이 좀 어렵다는 건데... 예를들면 대학교는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주잖아요? 제가 못 읽거든요, 그거를 일주일전에 주셔야 제가 타이핑을 치든 읽을 수 있게끔 하는데... (연구 참여자 I)

취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도 넘기 힘든 벽으로 작용한다. 면접시 출퇴근과 서류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여 시각장애인의 학력이나 전공 그리고 능력에 맞는 취업 선택을 제한한다. 취업상담의 경우에도 텔레마케팅이나 안마업 종사자로 진로를 유도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영일(2010: 52)은 시각장애인 전문가 부

재와 체계적이지 못한 서비스제공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정보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취업기회를 못주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들어보면 우리쪽에서 일을 하는데 출근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출퇴근은 혼자 해야지 안 그러면 취업이 안된다고하는 쪽도 있고... 그러면 '저 혼자 다닐 수 있고, 학교도 혼자 다녔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연구 참여자 H)

사실 고학력자들은 오히려 믿고 상담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복지관 같은데 가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많이 할 수 있는 텔레마케팅이나 안마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H)

2) 동료애 유지가 부담되는 직장생활

어렵게 진입한 직장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은 매일 점심식사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동료간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직원들의 감정상태를 살펴야 하는 긴장감을 갖는다. 신입직원의 경우 부탁하거나 동료와 이동의 기회를 놓쳐 굶거나 간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랜 직장생활에도 식사시간에는 정안인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고 정안인 앞에서 깔끔히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안인 동료의 도움을 받으려면 부담스럽지만 업무협조를 청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동료들은 업무과중으로 느낀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직급이 낮으면 부탁으로, 관리자가 되면 지시를 하게 되지만 여전히 업무과중으로 여긴다. 또한 직장내에서 시각장애인의 고유업무 영역을 만들지 못하거나 맡겨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무기력해지고 존재감이 약해져 이직의 갈등을 느낀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비굴해져야 하는 상황... 여자인 동료는 식판을 두 개 들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식판의 기울임 때문에 음식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연구 참여자 F)

일,, 한 두번은 되요, 방긋방긋 웃죠, 직장동료이면 일 부탁 싫어해요, 안 보여도 느끼거든요, 문서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많이 부탁을 하니깐,, '너는 왜 같은 직원이면서 왜 의존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죠, (연구 참여자 I)

직원의 근태관리나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환경의 경우에 우리 복지관도 최근에 다시 깨끗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 E)

‘저 시각장애인 일도 못하는데 왜 여기 왜있어?’ ...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전화 받는 일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원업무를 한다... 전화로 제가 딸 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해서 후원 업무를 댔습니다, 만약에 물품을 줬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십니까? 꼭 누구랑 같이 가요... 사람이라는 게 제 업무인데 늘 한 두번이지 ‘같이 갑시다.’ 갔다 오고..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요, (연구 참여자 I)

2.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활동보조서비스

1) 다양한 활동보조서비스의 활용유형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시각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이 접근 용이한 지지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저는 예전부터 활동보조인을 학습지원에 좀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워드작업이나 읽는 이런 면이 아직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연구 참여자 H)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는데,,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활동보조를 이용합니다,
(연구 참여자 D)

같이 간 사람의 센스의 문제인데,, 물건을 많이 구입해 본 사람들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줬다하면 어느 정도 금액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취향을 모르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 취향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대가 30대면,, 30대에 맞는 그리고 제 스타일을 보고서 그것을 몇 가지를 골라주면 그 중에서 제가 고를 수 있거든요, (연구 참여자 G)

저는 가사서비스 말고도 운동(요가)을 하는데 서포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제가 트러블을 안 일으키고 활동을 하는데도 최하,, 7명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제가 80시간을 받고 있는데요... 신속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활동보조인에게... 양이 많은 일반 교재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각장애 복지관이나 관련 교재 제작하는 복지관에 책을 의뢰를 해서 교재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I)

2) 활동보조서비스의 제한사유

시각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동, 학습지원, 소비활동, 가사, 운동, 워드작업 등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세분화된 서비스와 이용시간에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과의 갈등과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내에서 쓰기는 하는데 어떤 달에는 모자랄 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그나마 간신히 채웠다, 이런 달도 있고 한데,, 시간이 본인에게 빨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시간에 비해서 자부담률이 조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연구 참여자 H)

(활동보조인)연령대가 많게 되면 저도 이동하는 게 어려운데,,, 30대가 움직이는 거랑 50대가 움직이는 거랑 차이가 나죠,,, 현재는 대부분이 활동보조인이 4~50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30대 후반도 거의 없구요, (연구 참여자 F)

가사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대충 건성으로 내가 안보이니깐 그냥,, 건성건성 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죠, (연구 참여자 F)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맞춰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유동성 있게 움직여요, (연구 참여자 G)

3. 제한된 소통과 문제해결의 어려움

1) 온전하지 않은 의사소통

시각장애인은 정안인과 동일한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시각장애인은 대화할 때 타인과의 눈 맞춤, 얼굴 표정, 손동작 몸짓과 몸자세, 침묵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정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어조, 크기 및 속도 조절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 내용이 7%, 음색 등 음성적인 특성이 58% 정도 영향을 미친다(김영일, 2010: 217-218). 이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해 시각장애인은 정안인 직장동료들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제한에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3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1호)

저도 안보이다 보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죠, 무의식중에 말했는데 '야 이 자식아 쳐다보고 얘기를 해' 하더라고요 '난 안 보이는데 뭘 쳐다보고 얘기를 해,, 들으면 되지,,' 했는데 바로 드는 생각이,,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눈이 보인다고 했을 때 쳐다보지 않으면 좀 안 좋게 보이겠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D)

이론적으로 사과는 빨강다라고 외웠을 뿐이지 빨간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도 빨간색이고, 딸기도 빨간색이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들 그것에 대해서 말 그 자체를 외우는 거지 의미 해석이 안 될 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의사소통 면에서 정확한 의사를 주고, 받고 하는데 있어서 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연구 참여자 B)

자기표정도 자기가 관리를 못하잖아,, 나는 그런 말을 잘 몰라요,,, 한 번 씩 웃어봐,, 미소 지어봐,, 그러면 말만 알아요,, 어떻게 미소 짓는 건지 방법은 모른다니까? (연구 참여자 A)

2008 장애인 실태조사(변용찬 외, 2009: 143)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해독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시각장애인의 96.6%가 불가능하였고 2.4%만이 점자해독이 가능하였다.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중도실명으로 점자 학습 기회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동시에 점자 습득이 IT기기의 활용 등에 비해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점자를 모른다면 문맹이 되는 것인데 일상생활을 음성으로만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안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정안인들이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안한다면 모를까 점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중도장애의 경우 점자를 배우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고 편한 음성전환프로그램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참여자 E)

요즘 이 사회의 어떤 시각장애인 쪽에서의 흐름은 점자라는 것이 물론 좋은 거고 필요로 하지만, 어떤 분량이나 효과성 면에서는 상당히 더디고, 어떤 기회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연구 참여자 B)

2) 신분에 따른 문제해결과정

문제해결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발휘되는 어떤 한 개인의 기능적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사회관계의 관리를 포함한 일과를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전략들을 수반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개별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상속에서의 제외, 교육의 무가치, 무능력자, 타자의 통제에 쉽게 넘어감,

여성의 과보호 등으로 인식되어왔다(Ingstad Benedicte & Whyte Susan Reynolds, 2011: 304-315). 하지만 최근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진출과 더불어 자신의 신분에서 따라 다른 문제해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시키면 되는 입장이니까,, 뭐 내가 현금지급기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카드 줘서 찾아와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에서 손을 뗐을 때에,,, 내 주변에 시각적인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글썄,,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네,, (연구 참여자 A)

표 서식하는거,, 부탁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부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던가 친구한테 부탁을 하던가 해서 해달라고 해서 올리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I)

왜 단체에 말을 안했었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단체를 생각도 안했었고 단체로 하게 되면 공통사항에 대한 의견 반영은 되도 개개인 문제로는 안움직인다는 생각이 강했죠,, (연구 참여자 C)

전화에 카드 쓰면 찍히잖아요? 그런 거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카드사용은 전화로 바로 찍히니까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5만 얼마를 썼는데 50 몇 만원 찍혀서 전화로 직접 취소하고 한 적도 있고,, (연구 참여자 A)

4. 정보접근의 벽과 비용의 부담감

1) 정보접근을 막는 장애물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정보취득 매체 중 최근 정보통신기기(PC, 인터넷, 모바일 등) 의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급 및 비용의 부담을 겪고 있으며, 비장애인보다 물리적인 정보 활용 접근과 전자공간의 정보접근성이 대부분 낮고(김태균, 2006: 192-204),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조작의 어려움과 불만족스러운 음성전환(센스리더 등)이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호연, 2007: 71-74). 그 밖에 TV를 통한 방송 정보접근은 화면해설방송의 편성부족과 기기보급의 문제 등의 지적과 함께 방송정보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다(김호연, 정재민, 2010: 22).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 격차는 성별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발생시기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태균,

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1호)

조현숙, 2008: 76-77). 이렇게 정보매체가 발달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은 여전히 정보매체의 보급, 서비스 제공형태, 비용 부담, 사용방법의 숙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서 활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점자나 누가 옆에서 일일이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묻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연구 참여자 B)

그림에 걸리면 제대로 안 읽어주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고, 또 프레임이 있으면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번 막히면 해석이 안되니까요, (연구 참여자 G)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음성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이 곤란하죠, 사이트 자체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인증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활용을 본인이 못하죠, (연구 참여자 G)

점자로 빼려고 하면 이게 한권이 10권에서 20권이예요, 점자책으로,, 그러면 점자지 한 장에 50원 될 거예요, 그러면 20권된다고 하면,, 10배정도 생각하면 되요, 공부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자료 값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연구 참여자 D)

2) 통제하기 힘든 지출

장애로 인한 지출항목중 시각장애인은 이동에 대한 지출 및 점역과 같은 도움에 대한 사례가 높다. 물론 반복되는 이동 경로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거나 도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회적이거나 동선이 좋지 않는 곳은 여전히 택시(복지콜)이용이나 자가용의 이용을 선호한다. 그리고 점역이나 다른 도움을 받고 사례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교통비에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지출이 되죠, 자가용이 있어도 와이프가 운전 해줘서 같이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부득이 하게 택시를 타야 되니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많고, 때로는 와이프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주변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뭐 바로 기름 값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뭐 부탁한다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동 쪽에서 더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B)

비장애 친구한테 '이것 좀 읽어줘 봐, 워드압력 해봐' 이거는 비공식적인 건데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밥이라고 사줘야죠, 그게 솔찬히 들어가요, 대부분 자원봉사자 이용했거든요? 끝나고 저녁시간이 됐어요, 매번 보내긴 그렇잖아요? 애써 2시간 동안 서류 읽어줬는데

그래서 뱀사주고,, (연구 참여자 I)

보조기 접수의 경우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데 보급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려니,,, 그리고 정부 80%, 개인이 20% 자부담을 하지만 비용도 500만원정도여서 20%라도 부담이 됩니다, (연구 참여자 E)

5. 대처하기 힘든 금융거래와 소비자활동

1) 부담되는 금융거래

금융거래시 비장애인의 경우 개인정보 및 금융관련정보와 관련된 정보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과정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해야하는 상황을 맞는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매체에 대한 이용접근의 어려움이 있으며, 서명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목자로 써야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낀다. 더불어 전화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동행자를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어 금융거래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요즘에는 카드 이런 부분이 안심클릭이라고 해서 문자로만 이미지를 찍어야 거기에 접근이 가능해서 어차피 남의 손이 필요한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내 것을 보게 되고,, (연구 참여자 F)

요새 스마트뱅킹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로그인부터가 쉽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혼자다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밖에서 돈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H)

못써서가 아니라 스스로 엉망인 것도 알고 칸을 자주 벗어나게 되니까 '조금 더 작게 쓰셔야 겠어요,' 아니면 '조금 줄을 맞추셔야 겠어요,' 얼마나 작게 써야 하는지 이게 작다고 제 손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수치심을 갖고 있죠, (연구 참여자 B)

실시간 정보가 있는 곳에서는 떨어지죠, 하루 종일 전화통 잡고 있어서 영업직원하고 지금 어떻게 되요 할 수도 없고 아니면 ARS를 듣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사람들과고는 좀 차이가 많이나죠, (연구 참여자 C)

은행업무가 있을 때는 본인 서명이나 이런 부분을 은행이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대리인을 항상 데리고 가야 하고,, 예금하려고 갔는데도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니,,
(연구 참여자 F)

2) 제약 받는 소비자 활동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의 접근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총 14개 항목에서 91.4%의 ‘완전자립’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총 10개(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 금전관리, 물건사기(쇼핑), 전화사용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 근거리외출하기, 몸단장하기, 약 챙겨먹기)에서도 72.6%의 ‘완전자립’ 비율을 보였다(변용찬 외, 2009: 210). 그러나 물건사기나 금전관리 같은 직접적인 소비자 활동에서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심리적, 환경적, 사회인식적인 제한들이 있다.

은행에서 편드를 하나 했었는데 얘기해준 것보다 별로 안 올라서 크게 손해를 본 건 아니었는데 적금을 넣을 걸 했던 적은 있어요,,, 그리고 물건 살 때도 어떻게도 알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니까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H)

저렴한 거를 샀죠, 예를 들어서 발목양말이다, 제일 싼거 6천 원에 20개인가, 그런거 사기도 하고,,, 가격이 가장 큰 기준이 됐었구요, (연구 참여자 I)

이것도 한번 만져보고 저것도 한번 만져보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왜 물건을 만져보냐 이거죠, 그냥 사면되지,,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고,, (연구 참여자 G)

시각장애만 있더라도 대체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알아도 자유롭게 찾아 갈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주변 의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작 저는 즐기고 싶은데 대인관계 기피증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공연을 쉽게 볼 수도 없고 또 공연 보다가 또 돌발적인 일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C)

V. 결 론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올바른 재무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주권과 자기결정권 실천의 대 전제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9명의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 기술 중 의미 있는 진술로 총 211개가 도출되었다. 이 때 의미가 중복되는 진술을 제외한 범주화된 의미 있는 진술들에 대해 재 진술 과정을 반복하여 구성된 의미 41개가 추출되었다. 이는 다시 10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추상화되었다. 5개 범주는 먼저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2개 범주로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달픔’,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금융이해력의 직접적 저해 요인으로 ‘제한된 소통과 문제해결의 어려움’, ‘정보접근의 벽과 비용의 부담감’, ‘대처하기 힘든 금융거래와 소비자 활동’의 3개 범주를 추출하였다.

위와 같은 범주화와 각 범주에 따른 삼각측량법의 결과,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 증대는 점자와 언어주의에서 오는 의사소통방법의 곤란, 통합적 사회문화 형성을 중시하는 질적 대인관계와 같은 장애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장애 특성은 금융이해력 측정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네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교육·훈련에는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상시적 정보제공과 시각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점역, 전자도서, 음성지원, 컴퓨터(읽기, 확대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모바일 등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음성전환 프로그램의 오류(부정확한 발음, 필요 없는 부분 읽음)가 정보활용에 제한(C-⑤ 관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김호연, 2007: 71-73) 시각장애의 특성을 보다 철저히 반영한 관련기기 와 프로그램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A-①, A-② 관련).

둘째, 금융이해력을 활용한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훈련·정보취득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D-⑦, E-⑩ 관련).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 기관으로 기능해 온 종합 및 종별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립센터에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거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안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각장애인에게 금융거래 매체의 접근성은 텔레뱅킹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E-⑨ 관련). 시각장애인들의 금융거래는 장애특성을 반영한 다른 응대체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자필서명의무의 경우 대체수단(음성녹취, 지문확인 등)을 활용하고 응대체계의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시각장애인용 금융상품 음성안내 또는 텍스트 파일 제공 등 관련 규정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배제 없이 합리적인 선택과 문제해결과정을 스스로 찾도록 자립 센터 및 복지관에는 문제해결 과정에 상담과 집약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C-⑥ 관련). 또한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활용유형이 갈수록 세분화되는 추세(B-③, ④ 관련)에 맞춰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자부담을 줄이고(D-⑧ 관련)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한 욕구사정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고 이를 반영한 재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금융이해력 증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그에 따른 재원의 확충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김영일 (2010). **시각장애인복지론**. 서울: 집문당.
- 김정현, 오세웅, 이육승 (2007). 시각장애학교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각장애연구**, 23(2), 97-114.
- 김태균 (2006).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현황 및 요인분석. **시각장애연구**, 22(2), 183-205.
- 김태균, 조현숙(2008).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격차 요인분석. **시각장애연구**, 24(2), 61-79.
- 김호연 (2007).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3(2), 55-77.
- 김호연, 정재민 (2010).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연구. **시각장애연구**, 26(4), 1-25.
-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15(1), 66-94.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최미영, 손창균, 오혜경 (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지애 (2005). 금융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운택, 한경근 (2007). 시각장애 특수학교 컴퓨터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3(2), 207-237.
- 이익섭, 최정아, 이동영 (2007).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4(1), 49-81.
-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2011).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전은수 (2009). **농아인의 금융지식과 재정관리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 복지대학원.
- 전은수, 조원일 (2011). 농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의 심층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89-114.
- 조용환 (200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정광윤, 임안수, 이해균, 신동렬, 서인환, 강보순, 이동훈, 이우관, 이태훈 (2001).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 서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천규승 (2011) 우리나라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결과. **한국경제포럼**, 3(4), 73-92.
- Creswell, John W. 저/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서울: 학지사.
- Glen, W. White., Jamie, Loyd Simpson., Chiaki, Gonda., Craig, Ravesloot., & Zach, Coble. (2010). Move from independence to interdependence: A Conceptual Model for Better Understanding Community Participation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Consumer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0(4), 233-240.
- Hatlen, P. (1996). *The Core Curriculum for Blind and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cluding Those with Additional Disabilities*.
- Ingstad Benedicte., & Whyte Susan Reynolds. (2011).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김도현 역. 서울: 그린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http://www.fss.or.kr)
- 한국자립생활 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il.kr](http://www.koil.kr)

1) 본 고에서 연구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인터뷰 상에서는 맹인(blind)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시각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법적 용어인 '시각장애인(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로 표기를 통일하였다.

An in-depth study on financial literacy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 Based on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Paradigm of Independent Living

Jeon, Eun Soo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Cho, Won Il

Kyonggi University

<Abstract>

As the current paradigm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has been changed to focus on a consumer viewpoint to respec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study was made to analyze financial literacy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hrough the case study method. As a result, five categories have been drawn in this study with ten sub categories and forty one meaningful units relating to the five categories, respectively: barriers to economic activity and the weariness of a working life, activity support services to help achieve independent living, limited communication and difficulty of problem-solving, barriers to information access and burdens of cost, and handling difficult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sumer activities. Above mentioned categories were replaced into two categories. The one was for contextual understanding of financial literacy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he other was constrained factors of it. Lastly, this study showed that time and support were not enough in increase financial literacy and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although they have been utilizing personal assistant service for financial task as well as activities of daily living.

Key Words : Visual Impairment, IL(Independent Living), Financial Literacy

논문 접수: 2012. 01. 31 심사 시작: 2012. 02. 10 게재 확정: 2012. 03. 16